

이달의 어항 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항

겨울에는 뭐니뭐니해도 양미리, 사천진항

양미리 안주에 소주 한잔 걸치니 그동안의 고단함이 물밀듯이



양미리는 현지에서 일명 앵매리로 통한다. 굵은 모래 속에 몸을 감추고 살면서 작은 갑각류 등을 잡아 먹는데, 동트기 전에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 모래 속에서 한 번씩 수중으로 튀어 오르는 습성이 있다. 양미리 어획은 이러한 습성을 이용해 이루어지는데 양미리가 튀어 오르기 전에 미

리 바닥에 그물을 깔아 놓으면 튀어 오르는 양미리가 그물에 낚히게 되는 것이다. 이곳 아낙네들은 주로 촘촘한 그물에 걸려든 양미리를 그물에서 빼내는 일을 한다. 이 작업을 동해안 현지에서는 '양미리 판다' 혹은 '양미리 베끼다'고 한다. 양미리 따기는 그물 사이에 끼여 있는 양미리

며 칠 전부터 급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왔다. 몸이 움츠러들고 잠시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 질 수 있겠지만 사실 찬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하면 전국의 어촌에는 수산물로 넘쳐난다. 잡히는 물고기의 양도 많지만 살도 제대로 올라 맛도 그 만이기 때문이다. 그럼 겨울에는 어떤 수산물이 좋을까? 괜한 고민이다. 역시 겨울에는 양미리이기 때문이다. 자! 그럼 양미리로 유명한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항으로 떠나보자.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사천진항은 1982년 기본시설계획을 수립했으며 1996년 수치모형실험을 시행했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기준으로 북방파제 692m(잔량320m), 남방파제 110m(110m), 방사제 583m(218m), 물양장 380m, 호안 165m, 선양장 30m, 기타시설 1식 등이 완공되었다. 수산현황은 전업 40가구 163명, 겸업 58가구 235명, 지방어선 78척이 있으며, 양미리, 오징어, 문어 등이 주 어종으로 연간 어업생산량은 1,000MT이다.

리 바닥에 그물을 깔아 놓으면 튀어 오르는 양미리가 그물에 낚히게 되는 것이다.

이곳 아낙네들은 주로 촘촘한 그물에 걸려든 양미리를 그물에서 빼내는 일을 한다. 이 작업을 동해안 현지에서는 '양미리 판다' 혹은 '양미리 베끼다'고 한다. 양미리 따기는 그물 사이에 끼여 있는 양미리



의 몸이 상하지 않게 따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뜻 보기에는 몹시 어렵게 보이지만 이곳 아낙네들의 손놀림은 놀랄만큼 재빠르기만 하다.

12월이 되면 동해안에서는 양미리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 중에서도 사천진항은 양미리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유명

♣ 주변여행지

사천진항 주변 여행지로는 경포대와 경포대 해수욕장, 구룡폭포를 들 수 있다. 경포대는 비교적 높은 장소에 지어졌기 때문에 경포호와 주위의 넓은 들을 감상할 수 있다. 석호인 경포호는 경포대를 중심으로 호반에 산재한 역사적 누정(경포대, 해운정, 경호정, 금란정, 방해정, 호해정, 석란정, 창랑정, 취영정, 상영정)과 경포해수욕장 및 주변에 울창한 송림지대를 일괄하여 일컫는다. 옛날에는 둘레가 12km나 됐다고 하나 지금은 4km 정도이다. 경포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뛰어난 풍경을 일컬어 '경포8경'이라 부른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경포대해수욕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남아 있다.

♣ 먹거리

양미리는 뼈째 먹는 고칼슘, 고단백 생선으로 소금구이, 볶음, 조림, 찌개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시기가 지난 감이 있지만 6월부터 9월까지가 산란기인 보라성게도 별미이다. 처음에는 씹쓸한 맛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웬만해선 끊기 힘든 맛이 된다.

♣ 찾아가는 길

강릉시내에서 시내버스 37-7, 40번 탑승 사천진항에서 하차(12회, 25분소요)